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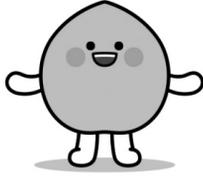
배돌이·매돌이...캐릭터에 지역 담겼네

전남 5개 지자체 캐릭터 보니

순천 '루미'·여수 '구니와 구기'
지역 친숙한 특성 형상화
축제·행사 홍보 활용 효과



나주 '배돌이'



광양 '매돌이'



순천 '루미와 똥이'

나주 배돌이, 광양 매돌이.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에 사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순이', '돌이' 등의 표현을 붙이는 것이 지역 캐릭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캐릭터가 갖는 친숙함을 지역 행사나 콘텐츠에 잘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지역을 홍보할 수 있지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엔지 익숙하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전남지역 5곳의 캐릭터를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다.

◇순천 흑두루미 '루미', 꿩똥 '똥이'=앞으로 쪽 나온 루미의 입을 보면 그가 순천시의 시조이자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당당한 포즈의 똥이는 순천만습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꿩똥'이다. 루미와 똥이의 디자인은 2018년 열린 순천시 캐릭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해 선정된 것이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습지가 가진 생태자원을 캐릭터로 표현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관광가이드 앱에 루미와 똥이를 변형시킨 '루미오와 똥리엣'을 등장시켜 AR촬영 콘텐츠, 가이드 캐릭터

등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밀집모자 쓴 나주배, '배돌이'=배돌이는 아빠 따라 시골에 내려왔다가 농촌의 매력에 빠진 캐릭터다. 배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수확하는 기쁨,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 배돌이는 나주시의 상징인 배를 의인화해 만들어진 캐릭터로 밀집모자를 쓴 농부의 모습을 표현했다. 나주 배 표면의 형태를 배돌이의 주근깨로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친근하면서도 힘차고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나주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담아내고자 했다.

◇항구도시 목포, '포포와 포미'=파도와 물의 이미지를 나타낸 '포포와 포미'는 목포의 '포'와 항구를 지칭하는 '포' (port) 아랍어를 '미'를 결합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밝게 웃는 어린이의 표정을 한 베이비 마스크트, 모자에 있는 깃발표시는 항구도시의 상징인 배와, 목포 유달산을 표현했다.

◇개구쟁이 청매실, 광양시 '매돌이'=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을 법한 가장 단순한 비주얼의 소유자다. 광양의 특산물 매실을 활용한 캐릭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매

돌이는 10살의 개구쟁이 매실 소년으로 동그란 몸매가 특징이다. 광양시는 매돌이를 SNS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롯이광양' 유튜브, 광양시 인스타그램 등에 출연하는 매돌이는 지역의 관광명소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사업 등을 전달하며 광양시의 마스코트와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여수 거북이 '구니와 구기'=여수에서는 이순신 광장에 있는 거북선의외도 거북이 상징물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거북선 광장에 있는 인공호수는 하늘에서 봤을 때 거북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일출명소로 알려진 향암사에는 곳곳에 돌로 만든 거북이가 놓여있다. 여수공식 마스코트 구니와 구기도 거북이를 의인화한 캐릭터다. 이름에 한자 거북이 구(龜) 자를 넣었다.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는 여수시민의 모습을 담았다는 것이 여수시의 설명이다. 여수시 공식 마스코트는 구니, 구기지만 여수세계박람회 마스코트 '여니', '수니'가 상대적으로 더 알려진 탓에 여수시 캐릭터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



무안군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여울 풍경 정원'

무안군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새단장

물의정원 등 체험공간 조성

무안군은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에 생활밀착형 실외정원인 '여울 풍경 정원'을 조성하는 등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단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옛 몽탄남초등학교에 위치한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는 60~70년대 근현대 생활상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무안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이다.

새단장한 실외정원은 '물의정원', '농경스팟정원', '놀이와 체험공간', '힐링쉼터'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물의정원'은 알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여울처럼

럼 몽탄지역과 어울리는 거울연못 공간으로 조성됐다. '농경스팟정원'은 계절감이 있는 역사, 흥가 시나무 등 어린시절 농촌길을 연상시키는 정원으로 정겨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놀이와 체험공간'은 회전놀이, 정글짐, 철봉, 모래놀이 등 초등학교 놀이기구를 설치해 체험활동과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힐링쉼터'는 등나무 목재스텐드로 그늘막을 조성해 옛 학생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조성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새단장된 여울 풍경 정원은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정원으로 조성했다"며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방문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진도군보건소가 '2023년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하는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 8개소를 선정했다.

진도군보건소는 '우리마을 전담주치의제' 사업을 통해 맞춤형 한방 진료와 건강 체조, 구강 검진 등의 원스톱 보건 사업 실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건강한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고흥군, 추석 대비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파손시설 보수하고 용품 비치

고흥군이 추석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고흥을 찾는 귀성객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내 감염병과 안전사고 등 예방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다.

군은 27일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해 청결상태, 편

의용품 비치상태, 파손시설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화장실에 대해 개선을 실시하고 편의용품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안심비상벨 작동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을 찾는 향유와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신안군, 멸종위기종 '나도풍란' 가거도에 시험이식

국립생태원 보전 협약 후속 조치
연구시설 증식 200개체 옮겨 심어

신안군은 국립생태원 연구시설에서 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종인 '나도풍란' 200개체를 흑산면 가거도에 시험이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반도 최서남단의 섬 가거도는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곳으로, 목포로부터 약 188km 정도 떨어져 있다.

2021년 3월에 진행된 신안군과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종 보전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이번 나도풍란 시험이식이 진행됐다.

나도풍란은 난초과 여러해살이 식물로 주로 상록수나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 한반도에서는 남해안 일부 섬과 해안지역, 신안, 제주도에 자생하며 꽃과 잎의 관상 가치가 높아 무분별한 채취가 이루어지며 현재는 야생에서 개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립생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3000개체의 나도풍란은 2019년 제주도 비자림에서 복원한 개체에 열린 종자(묘투리)를 실험실에서 발아·순화한 것이다.

나도풍란 이식 후에는 정보수집을 통해 개체 수



신안군 관계자가 흑산면 가거도에서 나도풍란 이식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변화(생존율), 성장상태(뿌리, 잎), 개화시기 등 기초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

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멸종위기종 보전 연구를 위해 국립생태원과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